

종합

‘美대선 족집게 예측’ 앤런 리히트먼 아메리칸대 교수 인터뷰

“스캔들 없고 연설 잘하는 오바마 무조건 재선”

특별대담=정후식 정치부장

올해는 대선의 해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50개 국가에서 대선이 치러진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선거는 미국 대선이다.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처음 선택한 나라인 데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오는 11월 치러질 대선으로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민주당에서는 버락 오바마 한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미트 롬니(65)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광주일보와 주한미국대사관은 5일 미국의 저명한 정치역학자인 앤런 리히트먼(Allan Lichtman) 아메리칸대학 교수를 초청, 광주YMCA 무진관에서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를 전망해보는 특별강연회를 마련했다. 1984년 이후 치러진 7차례의 대선 결과를 정확히 맞혀 ‘족집게(pin pointer)’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강에 앞서 그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백악관으로 가는 열쇠’라는 대선 예측시스템은 어떻게 만든 것인가.

▲지난 1981년 지진예측의 세계적 권위자인 볼로지아 케일리스 보로 교수와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진짜 지진이 아닌 ‘정치적 지진’인 선거에서 현 정부가 유지되는 것을 ‘안정’, 정권이 바뀌는 것을 ‘격변’으로 해석해 지진예측 기술에 기반해 연구해보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860~1980년 사이 120년동안 치러진 모든 대선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는 13개의 변수를 추출해냈다. 의회장 약과 당내경쟁, 협직프리미엄, 제3의 정당 출현 가능성, 장·단기적 경제상황, 정책변화, 사회적 불안정, 정권 스캔들, 외교·군사 분야의 실패 및 성공, 카리스마, 도전자와의 카리스마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예측시스템을 적용한 결과는.

▲1992년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지지율이 90% 까지 치솟은 조지 H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확신한다. 오바마는 13개 요소 중 9개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부정적 평가는 3개였고 나머지 1개는 판단이 유보됐다. 이미 2010년 1월 학술지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오바마는 유일한 민주당 대선 후보다. 현역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당내 도전 없이 재선을 치르고, 진보 성향의 제3후보가 오바마 표를 삼심하지 않게 된 것도 유리한 국면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과 경기부양책 등 이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시도했다. 통치 능력이 위험받을 만한 사회 불안 요인이 없고, 아직까지는 정권 차원의 스캔들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다. 대외 정책에



앨런 리히트먼 아메리칸대학 교수가 5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미국 대통령선거와 민심읽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선 변수 13개 중 9개나 유리

“차기 민주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의 성적표다. 이는 집권 중반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다른 대선 예측 시스템과 달리 조기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1984년부터 13개 변수 중 6개 변수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현직 대통령은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올해 미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나.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확신한다. 오바마는 13개 요소 중 9개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부정적 평가는 3개였고 나머지 1개는 판단이 유보됐다. 이미 2010년 1월 학술지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오바마는 유일한 민주당 대선 후보다. 현역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당내 도전 없이 재선을 치르고, 진보 성향의 제3후보가 오바마 표를 삼심하지 않게 된 것도 유리한 국면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과 경기부양책 등 이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시도했다. 통치 능력이 위험받을 만한 사회 불안 요인이 없고, 아직까지는 정권 차원의 스캔들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다. 대외 정책에

서도 실책이 없고 오히려 오사마 빙 라덴을 사살하는 전과를 세웠다.

-오바마와 롬니의 강점과 약점을 꼽는다면.

▲오바마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데다 토론을 잘하고 대중연설에도 강하다. 하지만 재임기간 경기가 좋지 않았고, 취임 초기가 너무 커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롬니는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하지만 물론 고 신앙과 온건주의로 연설이나 토론에서 밀리는 점이 약점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여려가지 실수가 있었다.

-지속적인 분석 결과 미국 대선이 진화하고 있다고 보는가. 대선이 항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양자 대결로 진행되는 이유는.

▲미국 사회가 변하지만 기조는 유지된다. 선거 변화가 대표적이다. 대선을 치르는데 날이 갈수록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소요된다. 지난 선거에서 17억 5천만달러가 쓰였고, 2012년에는 2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엄청난 부자

이거나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구조다. 미국 언론도 대선 보도에 수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경마레이스식 보도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는 186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구도이다. 양당간 정권교체 주기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은 올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하면 다음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론조사는 예측이 아닌 그 당시의 스냅샷 같은 것이어서 선거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선거가 임박해 실시한 조사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1988년 부시가 여론조사에서는 17% 뒤질 것이라고 나왔지만 뒤되 6~7% 차이로 이겼다.

/who@kwangju.co.kr

◇앨런 리히트먼 교수 약력

▲미국 브랜다이스대, 하버드대 박사(역사학)

▲아메리칸대 교수

▲1993년 올해의 교수상 수상

▲미 법무부 인권조사위원

▲‘백악관으로 가는 열쇠’(The Keys to the White House) 저술

여수박람회 야간 입장권 발행 드실은

관람객 증가 도움 수익엔 마이너스

주간 입장객 줄어 흥행 보탬 안돼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이하 박람회) 야간권 도입으로 관람객은 소폭 늘었지만 입장객 수입과 전체 흥행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절반 가격의 야간권(1만6000원) 발매로 상대적으로 일반권(3만3000원 가량) 판매가 줄고, 여수·순천·광양 등지의 관람객들은 야간권을 주로 구입할 것으로 보여 전체 박람회 흥행에는 보탬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야간 입장객을 늘리기 위해 박람회 조직위가 2만석 규모의 K팝 공연장을 신설해 대규모 공연을 열 계획이어서 자칫, 박람회는 없고 K팝만 있는 반쪽 박람회에 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조직위에 따르면 야간권을 발매하기 시작한 지난 1일 2106명, 2일 9029명 3일 6273명의 야간권이 팔렸다. 하지만 야간권 발매 이후 오전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야간권은 밭발하지 않은 지난달 29~31일 오전 입장객은 전체의 62~73%를 차지했지만 1일에는 50%, 2일 54%, 3일 5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야간권 밭발 이전부터 우려했었다. 조직위는 지난 2011년 3월 야간권 발매를 결정했지만 지난 3월 최종 폐지했고, 지난 1일부터는 다시 판매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조직위가 최근 정부에 보고한 야간권 발매 포기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여수·순천·광양지역에 한정돼 관람객 유입효과 제한적 ▲보통권 수요가 야간권으로 대체되면 서 수익구조에 악영향 ▲보통권 환불 후 야간권으로 교환 사태 우려 ▲해상무대 관람객(2600석) 한계로 안전사고 위험 등이 꼽혔다.

조직위는 개막 후 관람객 수가 늘지 않자, 다시 야간권을 판매하고 있지만 해상무대 입장권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수익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수입 감소를 불러 온다는 점을 사전에 알면서도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야간권을 판매하고 있다.

또 야간권 구입 관람객을 위해 크루즈터 미널 인근에 2만석 규모의 K팝 전용공연장을 만들어 K팝 스타들을 순차적으로 출연시킬 계획이다. 야간에 관람객이 몰리면 박람회 전시장 관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K팝 공연을 하고, K팝을 앞세워 관람객 수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조직위는 K팝 공연을 통해 하루 1만여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팝 전용공연장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시선이 굽지만은 않다. 서부광(38·광주 남구 서동)씨는 “해양을 주제로 하는 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은 갈수록 퇴색되고, 박람회장에는 인기 가수들의 공연만 남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의 여수엑스포

비언어 퍼포먼스극인 ‘점프’는 할아버지·아버지·어머니는 물론 삼촌에 딸까지 유단자인 집에 도둑이 들어갔다가 곤욕을 치르면서 벌어지는 코믹 무술극이다. 2003년 ‘별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총 9000회 공연으로 누적 관객 340만명을 모았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천만극장에서 펼쳐지는 ‘점프’ 공연은 아련한 추억을 선사해준다.

△특별기획공연 ‘점프’(천만극장·밤 8시)

△해상쇼 ‘꽃피는 바다’(해상무대·오후 2시)

△특별기획공연 ‘비틀케비’(천만극장·오전 10시 20분)

△특별기획공연 ‘전통한례 재현’(전통마당·오전 11시 30분)

△수상공연페스티벌 ‘비트’(해상무대·오후 11시)

△수상공연페스티벌 ‘오션블리스트피버’(해상무대·오후 7시 30분)

△DJ쇼(해상무대·밤 10시)

△어제의 관람객 수=5만6800명(이하 5일 오후 6시 현재)

△누적 관람객 수=120만1651명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회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사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

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려겠습니다.

☏(FAX)223-1772 훈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평)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봉선동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두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약600평(31억)

임대보증금 5억 월1,500만원

토지(매매)

■(상무지구)469㎡(142평)-매기

평당 1,200만원

(유홍가능·식당영업중)

■상무지구 833㎡(25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기 사거리코너)

■(상무지구)1,980㎡(600평)-평

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홍기능)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청앞)

(회사사옥·오피스텔 등 적합)

■동일지구(준주거지) 운암~하남

간대로변 4,470㎡(약1,352평) -

평당330만(예상적합)

광주 전남 토지매매

파일분

→ 빠른 계약 가능!

사실분